

불세출의 만고령장 김정은 원수님을 모시여 7.27의 전승신화는 영원불멸할것이다

승리란 무엇인가.
영원부귀의 필승이란 무엇인가.
때때로 이 문자들을 되뇌일 때마다 나의 머리에는 저도 모르게 7.27이 금문자 마냥 선명히 부각되어 떠오른다.
7.27! 이는 위대한 나의 조국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상징, 필승의 대명사이다.

해마다 찾아오는 7.27이 어이하여 나를 속추치는 환희로 설레이게 하고, 이 가슴을 용암보다 더 뜨거운 격정으로 끓어번지게 하는 것인가.

포연시킨 내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승리의 만세소리가 터져오르던 그때로부터 수많은 세월의 년월을 갈고 돌아오는데 이르는 69년간 천하무적의 핵강국으로 세계의 정상에 우뚝 솟아오른 영웅조선의 전승사는 7.27을 더욱 찬연히 빛내이고 그 의미를 비사히 더해주고 있다.

내 삼가 옷깃을 여미고 8천만 우리 민족의 대령수이신 불세출의 만고령장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영상을 경건히 우러른다.

모래불마저 타버리던 불타는 락동강가까지 남진하였고 3년간의 전쟁을 화염타패치는 전호에서 싸운 나의 아버지와 가말한 전투에서 희생된 삼촌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 나의 미숙한 붓으로 승리와 영광의 7.27에 글다발을 엮어드리고자 한다.

1

나에게는 색바랜 사진이 있다.
전승의 날 나의 아버지가 포연탄우속에서 생사를 함께 하여온 전우들과 남긴 추억깊은 사진이다.
69년이라는 아득한 세월을 말해주듯 희미해진 사진이지만 나에게서 전승세대 불멸의 군상으로 안겨준다.

아버지는 생존해계셨을 때 자주 이 사진들의 전우들에 대해, 전쟁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진을 들여다보며 추억에 잠기려면 시간간의 아득한 차이는 없어지고 그들이 나에게 만난 사연을 들려주는 듯하다.

전쟁전에는 대개 농사군들이었다는 전우들, 땅처럼 무한히 순박했다는 사진 속의 주인공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게 될 때면 그 첫 대화자는 다름아닌 나의 아버지이다.
나의 아버지는 해방전 정든 고향땅을 떠나 류택교에 오른 아버지의 손에 필러 중국 료녕성 관천현에서 화전을 일이며 생계를 이어왔다고 한다.

이국땅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조국의 귀중함을 심장으로 느끼게 되는 법이다.
북쪽 토스레웃을 걸치고 땅을 두지며 농사를 짓는 몸이지만 조국소식은 언제나 그들의 관심사였다.

일제패망후 남조선을 강점한 미제와 리승만피괴적역패당은 《북진》을 떠들며 속악산파 과파산, 양양과 용진을 비롯하여 38°선일대의 이르는 곳마다에서 공화국복반부에 대한 무력침공을 끊임 없이 감행하였다.

일제의 식민지통치 밑에서 짐승만도 못한 노예살이를 한것도 부족하여 또다시 이 땅을 미제의 식민지로 만들려 한 단 말인가.

조국으로 나가자. 조국을 지키자. 미제와 리승만역도의 《북진》소동을 막아야 한다.
누가 요구한것도 없었다. 강요는 더욱 아니었다.
아버지와 삼촌은 조국으로 향하였다.

조국보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것으로 되는지, 인생의 영광으로 이어지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한 아버지와 삼촌이었다.
만고절세의 애국자, 민족재생의 구세주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무명의 자기를 만나주실줄이야 어이 알았으며 조국보위의 귀족길을 예극의 길로 그리도 높이 내세워주실줄 꿈엔들 상상했는가.

한생토록 잊지 못할 영광의 절정이었다. 어떤 삶이 예극이고 참다운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금 깊이 절감하였다.

나의 아버지의 이 자각은 한생토록 불변이었다. 그리고 가물처럼 천하의 나날에 서리받치는 원수섭멸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칠월야밤에 단신으로 미군고문놈과 피뢰군장교 9놈을 통째로 생포한 전투

공로를 세웠고 근위 제6보병사단의 포병련대에서 개성과 김포비행장에 대한 해방작전에 참가하였으며 락동강까지 진격하였던 아버지는 그후 전승의 그날까지 포신이 식을 사이없이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눌러왔다고 한다.

오늘도 우리 집의 가장 귀중한 가보는 아버지의 색날은 군복에서 빛나는 전쟁시기 수여받은 국기훈장 제1급과 6개의 군공메달들, 19살청춘을 아낌없이 바친 삼촌의 털사중이다.

이는 우리 아버지세대가 말이 아닌 실천으로, 맹세가 아닌 피로써 조국을 지켰음을 보여주는 값높은 증거로 된다.
깊은 추억속에 사진을 다시 들여다보노라면 아버지가 그로록 잊지 못해하던 전화의 주인공들이 급시 그때의 모습으로 살아움직이는것만 같다.

그중에서도 소대전우들에게 《벼아바이》로 불리었다는 외출배기 상동병아바이의 모습이 나의 심신을 끌어당긴다.
불소나기가 쏟아져내리고 노호한 철과 철의 대결속에서도 전투의 일환이 되던 은 소대가 의례히 그의 곁으로 모여앉곤 했다고 한다.

전호가에 감도는 구수한 마차조연기와 함께 그가 못있어 회억하는 고향이야기가 전우들의 심금을 울려주고 두고 온 고향에 대한 향취를 더해주었기 때문이다.

그가 입버릇처럼 외웠다는 벼이야기는 얼마나 방불한지 지금도 마치 내가 직접 듣고 체험해본듯하다.

대대로 소작을 살며 농사일로 허리ја 굽은 상동병아바이에게 있어서 벼에 대한 애착이랄까 땅에 대한 사랑이랄까 하여튼 그것은 너무나 폭진하였다.
농사군의 평생소망인 땅을 분어해주시길 김일성장군님께 고마움의 인사로 잘 익고 있는 벼를 드리고싶어 출창 논밭에서 손그었다고 한다.

그에게 있어서 봄철에 눈으로 흘리든 이는 물줄기는 삶의 희열이었고 여름철에 키돋음을 하는 푸른빛의 벼는 삶의 보람이었으며 가을철에 물결치는 황금빛의 벼는 삶의 최절정이었다.

그 벼가 구리뒀겉을 번쩍이는 황소가 되어 외양간에 들어섰고 아무리 들어도 성차지 않는 채봉침의 사르랑소리로 되였으며 흉넛새만 나던 몸에 낡생 처음 양복이 되어 입혀졌다.

누가 벼를 한갓 쌀이라고 하였던가. 아바이에게 있어서 벼는 삶의 전부, 운명의 전부, 이 세상 전부였다.

그렇게 수룩 천덕구리밭자락을 지주부럽지 않을 교차준 김일성장군님 은덕이 사무치게 고마워 감사의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였고 잘 익은 옥백미를 알알이 골라 선함으로 예극미부터 바쳤다는 그것이다.

그런데 어디선가 날아든 미국놈들의 공중비적들이 멸곤 폭탄들이 그의 살결이나 다름없는 논밭을 사정없이 도륙했다.

억이 막혔다. 저도 모르게 불권을 적시며 흘려내린 눈물은 피맛이었다.

《벼는 내 인생의 전부였다. 벼가 자라는 눈을 무차별적으로 사정없이 파헤친 폭탄은 내 심장을 통째로 판도절해낸것이나 다름없었다네. 농사군의 고통중에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겠나. 그제서야 나는 내 삶의 기쁨과 행복의 전부로서 그 벼에 조국이 어울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네. 이 한복숨 다 바쳐 우리 장군님 주신 그 땅. 그 벼를 지키자고 반백의 나이에 이렇게 전선으로 나왔다.》

불라는 고지에 있을 때나 남진의 길에 오늘 때나 상동병아바이에게는 눈에 뜨이는 모든것이 고향땅의 벼처럼 소중하였다곤 한다.
황토먼지가 훑날리는 남녘의 드넓은 논판을 지날 때면 고향땅의 구수한 난 알향기를 떠올렸고 강기습의 울퉁불퉁한 돌서덜길에 발걸이 채일 때도 하루빨리 승리하고 고향땅에 돌아간 행배기의 눈이라도 더 풀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으며 달구지에 원호물자를 싣고온 얼룩소를 보면 욱토를 갈아엀던 고향집 누렁소생각이나 군용방통의 밤을 통째로 쏟아 먹이기도 한 그것이다.

조선전쟁은 이런 소박한 사람들이, 배풀어준 은덕에 보답을 알고 평화로운 삶을 해치는 불의를 절대로 용납치 않는 이런 정의의 인민이 치른 전쟁이었다.
호미를 잡았던 거죽진 손에 든 보병총이 적기를 좌멸구고 논밭을 갈아엀던 보장이가 땅코를 물고 적진을 매주 밟듯 돌진하였으며 창공의 비행기를 쏘

중국 베이징금천동력과학기술유한공사 총경리 김영관

기하게 바라보던 청년이 생발기로 미제 침략군의 《B-29》를 좌멸구는 공중전의 신화를 창조하고 목선을 타던 어부가 어뢰정을 물고 적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하여 세계해전사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장구한 인류사는 전쟁을 파피와 살육의 대명사라고 규정하였다.
하나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6.25전쟁은 단순히 적야생방의 군사적대결만이 아니었다.

난생처음 받아안은 참된 삶에 대한 무한대의 사랑이었고 그것을 빼앗으려는 날강도침략자들에 대한 격노한 증오와 보복의 불출이였으며 생명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받들고 백성된 도리를 다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어디서나 만날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전화의 영웅으로, 전쟁로병으로, 후세가 존경해야지 않는 위대한 년대의 전승세대가 되었다.

오늘도 미국의 전쟁사가들은 7.27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고있다고 한다. 그럴만도 하다.

령토는 78 대 1, 인구는 10 대 1. 건국사는 174년 대 2년, 경제력과 군사력은 아예 비교조차 불가능... 군사력의 차이는 말그대로 천양지차였다.
100차례가 훨씬 넘는 전쟁들에서 단 한번도 패한적이 없었다 미제가 조선전쟁에 투입한 추중군대들까지 포함한 다면 비교 그자체가 어불성설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병총과 자탄탄의 대결이였다고 하는지도 모른다.

원자탄을 이긴 보병총의 주인공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장군님 주신 땅 에로화 데루화 모두가 떨쳐나 벌갓이가세의 흥겨운 노래를 부르며 발을 갈던 농민들, 태어나 처음으로 남녀평등권, 8시간노동제, 유급휴가세의 혜택속에 공장의 주인이 되어 새 생활을 꾸려가던 로동자들이었다.

너무나도 수수한 사람들이었다.
이 소박하고 어진 인민을 알고 집략전쟁을 3일만에 끝내겠다는 미제의 호언장담은 세계의 먼전에서 1, 129일 만에 항복서와도 같은 정전협정체결로 뒤바뀌었다. 이는 세계전쟁사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전설속의 신화였다.

어제날 낮놓고 기속자도 모르고 착취와 압박을 승명처럼 감수하던 이 나라 백성들을 미제와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라승한 일격결속의 주인공로, 전승신화의 창조자로 이끌어주신분은 회세의령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이시였다.

전쟁발발이라는 속말하는 위기일발의 준엄한 시각에 호호랑랑 크게 웃으시며 미국놈들이 조선사람을 잘못 보았다고 하시던 김일성장군님의 음성은 세월의 언덕넘어 오늘도 승리의 메아리로 울려 퍼지고있다.

세계전쟁사가 치켜세운 력대 명장들을 거약일의 조약돌처럼 초라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풍전등화에 놓여있던 신생조선을 이끄시여 세계의 경관과 의욕을 그려왔다는 신화적인 7.27을 탄생시킨 천재적인 군사전략가, 강철의 배짱가이신 김일성장군님의 전승업적은 날과 달, 해와 년대가 바뀔수록 보다 큰 의미를 더해주며 길이 전해질것이다.

7.27은 탁월한 명장을 모신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위대한 상징으로 되었다.
나는 《전쟁과 미국》이라는 미국도서의 한 부분을 여기에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역사적으로 고찰해볼 때 미국은 명성높은 장군들을 한두명 가진것에 전쟁의 승리를 획득하는데 습관되어왔다. 그러나 조선전쟁은 미국의 장군들을 매장시켰으며 달구지에 원호물자를 싣고온 얼룩소를 보면 욱토를 갈아엀던 고향집 누렁소생각이나 군용방통의 밤을 통째로 쏟아 먹기도 한 그것이다.》

조선전쟁은 이런 소박한 사람들이, 배풀어준 은덕에 보답을 알고 평화로운 삶을 해치는 불의를 절대로 용납치 않는 이런 정의의 인민이 치른 전쟁이었다.
호미를 잡았던 거죽진 손에 든 보병총이 적기를 좌멸구고 논밭을 갈아엀던 보장이가 땅코를 물고 적진을 매주 밟듯 돌진하였으며 창공의 비행기를 쏘

구세주, 생명의 은인이 아니신가.
이 나라 백성들은 자기 운명의 전부이신 김일성장군님을 보위하고자 하나밖에 없는 청춘과 목숨을 웃으며 서슴없이 바치였다.

조선의 7.27은 진정한 삶의 향유자들이 돈과 재물에 말린 고용병들을 력사의 무덤에 처넣은 위대한 전승이였으며 자기 수명을 받드는 인민의 힘을 담랄자 이 세상에 없다는 철리를 인류사에 값높이 아로새긴 불멸의 선언이다.

2

승리는 지켜야 빛나고 이어가야 영원한 법이다.
지난 4월 조국의 수도 김일성광장에 서 거행된 조선인민혁명군창건 90돐경축 열병식은 나의 가슴에 7.27의 심원한 의미를 다시금 새겨주는 또 하나의 계기로 되었다.

력대로 열병식은 해당 나라가 자기의 군사적위와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되어왔다. 로씨야와 중국, 미국을 비롯한 대국들은 물론이고 작은 나라와 민족들도 다양한 계기때마다 성대한 열병식으로 승리를 자축하고 위세를 과시하는것은 그때문이다.

허나 내 조국의 4월열병식은 세계열병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전부후무한 열병식, 이 지구를 통째로 뒤흔든 사상초유의 특대열병식이였다.

신비하다는 말로는, 황홀함과 감탄만으로는 표현할수도 형용할수도 없는 대화극이였다.
김일성장군님의 존함을 모신 광장에서 김일성장군님이 선포하신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일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경축 열병식이여선지 전승의 력사가 맥맥히 이어지고있는 력사의 박동이 심장에 그대로 미쳐와 더욱 큰 감동을 받지 않을수 없었다.

화려함과 신비함, 황홀함과 완벽함에 완전히 넋을 잃고 심취된 나머지 열병식 시간이 언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TV 화면이 바뀌었지만 그저 무아경에 잠겨 환성만 타진 나왔다.
불수룩 위엄있고 장편이였다.

김일성광장에서 종횡한 화광과 명멸하는 불야경속에 충렬하고 박력있는 군악소리가 맞춰 승리의 열병광장을 보무당당히 누비나가는 열병대으며 평양의 밤하늘가에 장쾌한 동음드들이 오색평통한 축모란을 터치며 경축의 불보라를 휘황찬란하게 부러던 붉은 참매들의 위용은 으뜸의 절정이었다.

그중에서도 나의 이목을 그어잡은것은 심아의 행성을 끌는 격동속에 진감시키며 위대한 김정은최강국의 강용함과 그 위세의 무한대함을 만방에 떨친 절대적힘의 실제-초강력무장장비들이였다.

《당대하 조선이 나갑니다. 위대한 인민이 나갑니다. 조선의 화성포가 힘차게 전진합니다.》라고 세계를 향하여 격정을 락트하던 조국의 영명방송원의 창도봉은 목소리가 지고도 들려오는것만 같다.
정면 무장장비의 단순한 위력시위가 아니였다.

세계열병사는 물론 이 지구상 어느 나라 근대도 감히 상상해볼수도 모방해볼수도 견주어볼수도 없는 세계최고의 대표작, 세계초유의 열병대축진이였다.
세연에게 정의와 평화를 지켜낼 만능의 힘이 과연 무엇인가를 긴 실명없이 직관적으로 보여주고 심장으로 절감케 한 완전무결함과 최절정의 극치를 이룬 세계적인 국력시위였다.

이 땅의 어느 누군들 감회있는 생장에 잠기지 않을수 있겠는가.
포연이 서린 패허우에서 거행되던 전승열병식을 생생히도 기억하고있는 우리들이다.

그때로부터 69년이 흐른 오늘 바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내 조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필승과 영망무궁의 대열병식을 거행할수 있는것이 아닌가.
그것은 절대적힘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과시한 천하강국의 참다운 모습이였고 약육양식의 야욕으로 세계를 괴롭히고 짓밟는 불의와 폭제의 힘이 중

극적파멸을 선언하는 정의의 힘의 일대 시위였다.

가물처럼 젖혔던 조선전쟁의 나날 락동강모래물에 피눈물을 쏟으며 돌아서야 했던 나의 아버지가, 애끓은 나이에 원수섭멸의 결전장에 꽃나이청춘을 바친 삼촌이 떠오른다.

그들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기뻐하랴 하는 생각에서이다.
전쟁이 끝난 후 아버지는 조국을 떠나 부모처자가 있는 중국 료녕성 관천현으로 돌아왔다.

평상시 무척 과묵한 아버지였지만 주변사람들에게 전쟁시기 피흘리며 싸운 이야기를 감동깊게 들려줄 때마다 격조높은 어조였으며 전쟁때 다친 여러곳의 부상자리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식들에게 조국의 귀중함을 베퉈까지 느끼도록 말해주어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해주었다.

내가 조국의 강국건설에 미력하거나 기여하고있는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컸기때문이다.

4월의 열병광장이 우리 해외동포들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은것은 심아의 황홀한 신비경속에 하늘끝까지 치달은 내 조국의 무진막강한 힘에 대한 찬란만이 아니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굽부상하는 정의로운 내 조국의 위용과 절대미문의 흑독한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굴함없이 오직 하나 비약과 전진만을 아는 무한대의 저력이 우리 가슴에 천원안밭같이 들어앉았다.
승리는 언제나 김정은원수님의것, 우리의것이리라는 남다른 자부과 절대적인 신념이 더욱 굳세여진다.

그래서 내 조국은 너무나 성스럽고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나 위대한것이 아닌가.
언제인가 나는 일본의 어느 한 신문에 실린 옛 《황군》의 열병행진이라는 것을 본적이 있다.

지난날 《대동야공영권》을 부르짖으며 조선과 만주땅을 퍼바다로 만들었던 일제의 100만관동군의 《위용》이 부러워시킨 시누런 《황군》누메기를 걸치고 일본토를 허리춤에 찬 사무라이후예들이 일장기와 옥일기를 흔들며 도심을 누벼대고 특급전병자들의 위개가 포만되어있는 야스구니진자앞에서 옛 땅상을 생취해보셨던가 페배자들의 복수야망을 토해내는 추한 몸물들이였다.

세대가 수차례 바뀌었지만 패자의 양갈음은 노리는 일본반동들의 패기어린 살통경과 대조선적대시를 국책으로 하고 복침의 기회만을 엿보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전쟁연습공명이 순간도 멈추지 않고있는 오늘날 정의와 진리의 우우를 본분으로 하고 군력강제에 총력을 기울이는 내 조국의 모습은 얼마나 장한것인가.

내 조국은 이 행성의 초강국이다.
가슴부드러운 궁지속에 지난 3월 24일 세계최대급의 절대병기 《화성포-17》형태륙간탄도미사일시험발사의 페개가 떠오른다.

세계무기교에 전무한 《화성포-17》형시험발사의 대성공은 누리에 찬란히 빛나는 우리 조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이 행성의 최고봉에 우뚝 올려세운 특대사건이며 만만년민족사의 최고속원을 풀어준 경사중의 대경사이다.

그 대성공의 포성은 일단 결심하면 반드시 실천시키고 실천하시면 반드시 세계사적인 위대한 승전패거를 이루어내시는 위대한 우리 원수님의 강철의 탄력과 불굴의 의지가 다시한번 이 행성을 통째로 진감시킨 정의의 퇴성, 필승의 퇴성이였다.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만 하다.
힘이 약한탓에 그리도 수난났고 눈물함던 우리 민족의 불우한 과거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되리고 우리 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시 주체조선의 응결체, 무적필승의 만년보검이였다.

《9대핵보유국》
《6대초소련보유국》
《6대태극관탄도미사일보유국》
《7대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보유국》
《4대초음속미사일보유국》...

이것은 세계최고봉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조국의 전략적지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내 눈길들이 대성산 주작봉마루의 함일렬사들과 석박산기습의 참전로병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와 삼촌을 생각해본다.

그들이 주황색화염을 내뿜으며 만리대공에 치달아오르는 거대한 힘의 실제를 보았다면, 위도와 경도를 초월하여 전 지구를 작전무대로 삼고있는 이 주체의 타격체를 보았더라면 얼마나 기뻐하며 탄성을 터치였겠는가.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도 그 위력의 무한대함을 다 알고있다.
《조선이 세계를 다스린다.》

《김정은령도자는 위실통, 도표가 발편장을 질수 없게 만들었다.》
《북미싸일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세계적수존》

《앞으로 60년동안 미사일방위체계개발에 3, 500억US\$를 쏟아부어도 《효과적대응》 불가능》...

내 조국이 대성공을 이룩한 날은 미국을 위시로 한 서방나라들이 나토수뇌자회의와 7개국수뇌자회의, 유럽동맹수뇌자회의를 동시에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한자리에 모여앉아 모의관을 벌려놓은 날이였다고 한다.

결국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 행성의 부정의의 세력들을 대상으로 정의의 퇴성을 울리신것이다.

적하면 군사적동공을 취드르며 이 행성의 곳곳에 피비린 죄악의 상처를 남겨놓는 바이든과 존슨, 기사타같은 놈들이 어찌 흔비백산하여 아우성치지 않을수 있었는가.

우리 민족의 반만년속원을 풀어주기 위해 남모르는 협로역경의 사생길을 헤쳐오신 만고절세의 영웅 김정은원수님의 희생적인 헌신과 로고의 단단사건이 밀물처럼 파도쳐온다.

결코 예라게 비란다고 하여 이룰수 없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쉼이 성취할수 없는것이 천하강국의 목표이고 꿈이다.

부국강병을 위해 사생결단해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시야말로 이 행성의 유일한 정의의 희신이고 동서고공에 으뜸가는 불세출의 천하제일장군이시다.

끝없는 매혹과 흠모의 마음으로 되뇌여본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가장 위협천만 한 사지에도 주저없이 나서신 우리 원수님의 심층속 가장 깊은 곳에서 힘과 용기를 배가로 분출시키고 역세게 떠밀어온 강인담대한 완강성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

나는 감히 단언하고싶다. 그것은 조선 특유의 위대한 정신, 7.27정신이였고 말이다.

아마도 세계최초의 핵보유국으로 일컫는 미국과 정면으로 맞서 기적과도 같은 전승신화를 창조한 김일성장군의 7.27정신, 영웅조선의 7.27기적의 김정은원수님의 심층속에 힘차게 맥동쳤으리라.

우리 원수님처럼 7.27의 의미를 제일 소중히 간직하고 7.27을 제일 사랑하는 이는 이 세상에 없을것이다.

지금도 국방발전전략회 《자위-2021》 개막식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기념연설이 세찬 진폭으로 이 가슴을 울려준다.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 우선 강해지고되야 합니다.》

참으로 그 어느 나라 근건설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주옥같은 명언, 목숨같은 명제이다.
불제의 국력이자 국권이고 인민의 존엄이며 후손만대의 영원한 번영이라는 진리를 빛나는 현실로 펼쳐놓은 김정은초강국.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의 절대적힘은 영원한 승리, 광휘로운 승리만을 기약하고있다.

나의 아버지세대가 1950년대의 전승세대로 불리었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김정은시대에 미국의 완전항복을 받아낸 우리모두를 제2의 7.27전승대로 길이 기억하게 되리라고 확실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빛나고 더욱 깊게 아로새겨지는것이 7.27전승의 영원한 전통이다.

그래서 7.27은 더욱 빛나다. 그래서 7.27은 더욱 의미깊다.

나는 소리높이 웨치고싶다.
내 조국은 영원한 7.27의 승리로 무궁번영할 위대한 천하의 강국이다.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여 주체조선의 7.27의 전승신화는 영원히 불멸할것이다.